

만화가 박시백씨(39)에게 올해는 기념할 만한 연대로 기억될 법하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감옥에 스스로를 유폐시킨 해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7월 《만화 조선왕조실록》(휴머니스트) 첫 권을 펴냈는데, 3개월에 한 권씩 5년에 걸쳐 총 20권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하역사만

“역사란 게 결국은 사람들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만큼 재미있는 일도 없죠. 현재 삶의 연원은 과거인들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야를 과거로 넓혀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제 나름의 평가를 내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조실록만큼 풍부한 텍스트도 없었죠. 야사 위주로 조선사를 해석하는 왜곡된 통념도 깨보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시사만화와 역사만화가 접목될 수 있다는 점도 체계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역사에 헌신하는 늦깎이 만화가

— 만화가 박시백씨 —

글_ 박천홍_ 자유기고가

무릇 작품의 깊이는 작가가 살아온 삶의 깊이에 비례한다. 박시백 화백은 국내 만화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사회과학적 식견이 높은 만화가로 손꼽힌다. 그는 머리만으로 세상을 배운 게 아니라 온몸으로 세상을 깨우쳤다. 그의 만화에 이 땅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화라는 장르에 첫 도전장을 내민 데다 세 달에 한번씩 독자를 찾아가겠다고 공언까지 한 터라 자다가도 흠칫 놀라 깰 만큼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가 역사만화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이다. 《한겨레신문》에 재직하고 있던 2000년 무렵, 만화적 상상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찾아왔다. 신문독자들의 시선을 늘 의식해야 하는 일도 힘들었다. 회사인간으로서 생을 마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곤경을 헤쳐나갈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제는 승부를 걸 때라는 내면의 목소리도 외면하기 어려웠다. 그때 역사가 그에게 찾아왔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준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무엇보다 회사에 얼마인 몸이라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왕조실록의 거대한 분량에 겁이 나기도 했다. 잘 해나갈 수 있을지 회의적일 때도 많았다. 하지만 이미 내친걸음이었다. 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소장학자들의 연구서를 읽어가면서 밑그림을 그려갔다. 이듬해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스스로 배수진을 친 것이다.

역사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것은 해석의 정당성과 독창성이다. 그는 학계의 성과를 최대한 참조하면서도 기존의 통념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역사를 바라볼 때 자기만의 독창적인 해석이 없다면 그것은 아류작이나 모방작에 그치고 말 뿐이다. 그는 마르크스의 좌우명을 되새겼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 결과 그는 이 책에서 자신만의 인물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공양왕에 대한 평가가 한 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공양왕은 무능하고 나약한 왕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공양왕은 최규하 대통령만큼이나 자기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왕조의 몰락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인물이었다. 그가 패배했다는 이유만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잣대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시대의식이라고 할까요. 한 인물이 당대의 요구와 개인의 사욕 사이에서 어떤 지점을 선택했는가가 제겐 중요했습니다. 당연히 사욕보다는 시대의식에 충실한 인물일 때, 그리고 그가 선택한 길이 긴 역사적 관점에서 올바른 때 그는 당대의 승패를 떠나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겠죠.”

첫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언론은 그에게 기꺼운 찬사를 보내주었다. 한 리뷰에서는 “과거의 재현과 현대적 해석, 그리고 재미와 교양이란 두 마리 토끼를 낚아챌 수작”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만화평론가 박인하는 “간짜리 만평보다는 연속되는 이야기가 어울린 박시백의 작화 스타일은 과거 역사의 인물들을 매력적으로 재현하고, 격동의 순간을 적절한 긴장의 흐름으로 표현하는 데 효율적이다”며 후한 점수를 매겼다.

대중예술의 하위장르로서 여전히 천대받고 있는 만화에 대해 이런 찬사가 쏟아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만화를 본격예술로 승격시키려는 사회 일각의 흐름이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작가 박시백의 무르익은 필력과 역사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없었다면, 이 책은 그저 만화 대본소의 한 모퉁이에서 겨우 유명하는 운명에 만족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낮은 곳의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

무릇 작품의 깊이는 작가가 살아온 삶의 깊이에 비례한다. 그는 국내 만화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사회과학적 식견이 높은 만화가로 손꼽힌다. 그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 때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운동에 연루돼 철창에 갇혔고 출옥 후 노동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머리만으로 세상을 배운 게 아니라 온몸으로 세상을 깨우쳤다. 그의 만화에 이 땅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화가로서 그의 생애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도 남들처럼 어릴 적부터 만화에 심취했다.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접어야 했다. 그저 열렬한 독자로 자족했다. 대학 4학년 때 대자보에 그린 만화가 사람들 눈에 띄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총학생회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성이 강한 습작일 뿐이었다. 노동현장에서 돌아와 삶에 복귀했을 때 현실은 냉혹했다. 생계가 앞길을 가로막았다.

이 무렵이야 그는 만화가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출구 없는 현실에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처럼 보였다. 만화 공모전에 응모하



▲ 만화가 박시백씨

기 위해 외롭고 힘든 독학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번번이 고배만 마셨다. 신한은행에서 주최하는 ‘새싹 신인 만화상’에 입선한 게 전부였다. 결국 만화가의 길도 그를 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친구들처럼 그는 최후의 선택으로 고시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알맞았다.

“시립 도서관에 가서 법전을 들춰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연히 정간실에서 《한겨레신문》의 만평가 모집공고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무시하고 맘먹었습니다. 그런데 마감 전날이 되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번만 더 응모해보고 안 되면 깨끗이 미련을 버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며 작업을 했죠.”

시사만화가 박시백은 이렇게 탄생했다. 서른 두 살의 늦깎이로 입문한 것이다. 그는 5년 동안 《한겨레신문》에서 ‘한겨레그림판’과 ‘박시백의 그림세상’을 그렸다. 습작기간이 짧았던 그에게는 피 말리는 나날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만화를 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에 감염되었다. 그의 만화는 소란스러운 열광은 아니지만 조용하면서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만화가 재치나 기교가 아니라 진정성의 산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역사를 향한 그의 대장정은 이제 초입에 들어섰을 뿐이다. 그는 현재 전업작가이면서 동시에 전업주부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챙겨주는 일로 하루가 빠듯하지만, 매일 일곱 시간 내지 여덟 시간 동안 만화에 매달린다. 단행본 한쪽 그리는데 서너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하루에 두 쪽 채우는 일도 벅겁다. 하지만 그렇게 느릿느릿 그의 붓끝에서 조선의 역사, 아니 우리 삶의 역사가 피어나고 있다. 